

#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285	218	165	286
(103위 순교성인)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주의 잔치)	(순교자의 믿음)

제 1독서 | 민수기 11,25-29

화답송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좌)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우)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좌)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이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오리까? 숨겨진 저의 잘못 씻어 주소서.◎

○(우) 오만한 자에게서 당신 종을 지켜 주소서. 제 위에 균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흠 없이 살며, 크나큰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제 2독서 | 야고보 5,1-6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9,38-43.45.47-48

영성체 후 묵상 소구 |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Today's Readings & Gospel

### First Reading: Numbers 11,25-29

The Lord came down in the Cloud. He spoke with Moses, but took some of the spirit that was on him and put it on the seventy elders. When the spirit came on them they prophesied, but not again.

Two men had stayed back in the camp; one was called Eldad and the other Medad. The spirit came down on them; though they had not gone to the Tent, their names were enrolled among the rest. These began to prophesy in the camp. The young man ran to tell this to Moses, 'Look', he said, 'Eldad and Medad are prophesying in the camp.' Then said Joshua the son of Nun, who had served Moses from his youth, 'My Lord Moses, stop them!' Moses answered him, 'Are you jealous on my account? If only the whole people of the Lord were prophets, and the Lord gave his Spirit to them all!'

### Second Reading: James 5,1-6

An answer for the rich. Start crying, weep for the miseries that are coming to you. Your wealth is all rotting, your clothes are all eaten up by moths. All your gold and your silver are corroding away, and the same corrosion will be your own sentence, and eat into your body. It was a burning fire that you stored up as your treasure for the last days. Labourers mowed your fields, and you cheated them - listen to the wages that you kept back, calling out; realise that the cries of the reapers have reached the ears of the Lord of hosts. On earth you have had a life of comfort and luxury; in the time of slaughter you went on eating to your heart's content. It was you who condemned the innocent and killed them; they offered you no resistance.

### Gospel: Mark 9:38-43,45,47-48

John said to Jesus, 'Master, we saw a man who is not one of us casting out devils in your name; and because he was not one of us we tried to stop him.' But Jesus said, 'You must not stop him: no one who works a miracle in my name is likely to speak evil of me. Anyone who is not against us is for us.'

'If anyone gives you a cup of water to drink just because you belong to Christ, then I tell you solemnly, he will most certainly not lose his reward.'

'But anyone who is an obstacle to bring down one of these little ones who have faith, would be better thrown into the sea with a great millstone round his neck. And if your hand should cause you to sin, cut it off;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into life crippled, than to have two hands and go to hell, into the fire that cannot be put out. And if your foot should cause you to sin, cut it off;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into life lame, than to have two feet and be thrown into hell. And if your eye should cause you to sin, tear it out;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with one eye, than to have two eyes and be thrown into hell where their worm does not die nor their fire go out.'

## 오늘의 복음

그때에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 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  
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  
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  
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  
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  
도 꺼지지 않는다.”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라  
고 말합니다. 오늘의 제1독서인 11장에서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 천막 주위에  
모인 이들에게 모세의 영을 나누어 주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영이 내리고 그들이 예  
언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영은 모세에게만 주어지고 그와 함께 있는 이들만 예언을 하여야 한다고 주  
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 자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예언자를 통해서, 되도록 많은 예언  
자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그 일이 자신을 통해서만 이루  
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나오는 요한과 예수님은, 민수기에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보여 준 것과 같은 태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자  
기 무리에 속한 이들만 그 일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지금 복음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 복음을 선포하는 나 자신을 중  
심에 두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당장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다  
하여도, 또는 수고는 내가 하였는데 공로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 하여도 아무런 미련이 없어야 모세  
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참으로 이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안소근 실비아 수녀)

## 공지 사항



**‘전진성사’를 받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마음모아 기도합니다!**

김천주 (윌리암), 김태룡 (가브리엘)  
김수진 (베로니카), 김한나 (비비안나)  
한정민 (세실리아), 김완 (제노)  
김윤 (로레나), 서빅토리아,  
백지윤 (율리아나), 백세현 (레오)  
강희주 (마리아 프란체스카)

\* 미사 후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간식나눔’이 있습니다.

### | 미사 참례자 수 |

9월 15일	유아·청소년: 25명	성인: 58명
9월 22일	유아·청소년: 명	성인: 명

###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 전례 독서 봉사자 |

다음주 (10월 6일)	이상명 다니엘, 주정자 루치아
-----------------	------------------

###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9월 29일)	요한반
다음주 (10월 6일)	루카반

### | 우리들의 정성 | (9월 21일 ~ 9월 27일)

봉 헌 금	\$ 281			
교 무 금	\$ 610			
권모순	남궁영근	안영규	양명식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재희	장호훈	정은영
조성희	주정자	한상지		

### | 기도 지향 |

-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 투병 중인 모든 환자분들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